

삶과 죽음...치유를 이야기하다

떠오르는 마음, 맞이하는 영혼

광주비엔날레 전시공간을 찾아서

<4> 국립광주박물관·광주극장 광주문화재단·ACC

유물과 인간 관계 조명 영상 눈길 타렉 아투이 '엘레멘탈 세트' 전시 파빌리온 프로젝트 진행

국립광주박물관은 올해 처음으로 광주비엔날레 전시장으로 변신했다. 오는 5월9일까지 열리는 제13회 광주비엔날레 주제전 '떠오르는 마음, 맞이하는 영혼'의 전시장인 박물관에서는 '사방천지, 온전히 죽지 못한 존재들'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11명의 작가 작품이 전시중이다.

박물관 로비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작품은 크리산네 스타타코스의 설치 작품 '다키니 거울'이다. 신체, 언어, 정신을 뜻하는 세 개의 거울 주변으로 다양한 색깔의 장미 꽃잎들이 흩어져 있는데 이는 불교의 상징 '만다라'를 뜻한다. 이 꽃잎은 전시 기간 동안 부서지고, 해체되면서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게 된다. 뒤편에는 알리 체리 작가의 영상 작품 '땅 파는 사람들'이 상영중이다.

본전시장 안으로 들어가면 인상적인 영상 작품을 만나게 된다. 테오 에세투 작가의 '고스트 댄스'는 오랜세월 잊혀졌던 유물이 발견되고, 그 유물들이 전시되는 곳이 '박물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시 장소에 안성맞춤인 작품이다. 고대 유물과 이를 발굴하고 전시하는 인간의 관계를 무용과 영상으로 풀어낸 '고스트 댄스'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소장품들이 박물관으로 들어오면서 겪는 은유적인 죽음과 삶의 관계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일본의 전통 무용인 부도 댄스와 현대와 전통 아프리카 춤을 선보인 남성 댄서의 역동적인 몸놀림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며 베를린의 박물관 홍보물트 포럼의 아시아 미술관에서 촬영했다.

국립광주박물관을 비롯해 한글박물관, 사머니 증박물관, 기회문화박물관 등에서 가져온 다채로운 작품은 삶과 죽음에 대한 다양한 생각거리를 던져준다. 전시장 위를 올려다보면 죽은 사람들의



국립광주박물관 전시작 테오 에세투 '고스트 댄스'

사후 세계로 인도한다는 '극락조'를 만날 수 있는데 이 조각품은 전시장 곳곳에 그림자를 드리우며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밖에 박물관 야외 정자에서는 '소리로 꿈꾼 비:치학경에 대한 경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설치 작가 세실리아 비쿠냐와 음악가 리카르도 갈로의 협업 작품으로 한국 예술계의 상징적 인물로 꼽히는 치학경을 오마주했다.

또 다른 주제전 장소인 광주극장에서는 3명의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주디 라들의 '우리를 둘러싼 세계보다 따뜻한'은 거문고와 장구, 징이 어우러진 연주 모습을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과 음악을 헤드셋을 쓰고 감상할 수 있다. 그밖에 조피아 리데트의 작품은 영상 작업과 그래픽이 어우러진 작품이다. 85년 역사를 자랑하는 전국 유일의 단관극장인 광주극장은 '장소' 자체만

으로도 흥미롭게 둘러볼 수 있다.

광주극장에서 도보로 5분 정도 떨어진 광주문화재단 빛고을 아트스페이스 미디어 333에서는 'GB파빌리온' 작품인 타렉 아투이의 '엘레멘탈 세트'를 만날 수 있다. 사운드 아트를 전방위로 탐구한 타렉 아투이는 2019년 광주 방문 이후 전통악기, 웅기, 청자, 한지 등 한국의 전통적 미학을 담은 작품을 제작했다.

전시장에서는 전통적인 의미의 장구, 북 등과 함께 작가가 새롭게 제작한 다양한 타악기들을 직접 연주해 볼 수 있으며 제작 과정을 담은 동영상도 흥미롭다. 특히 이 작품의 전시장은 작업실 겸 무대 역할을 하게 되는데 매주 토요일 라이브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지난 10일 권병준 음악가가 첫 공연을 가졌고 이후 서인석 약기장, 윤수희 음악가, 허동혁 음악가 등이 참여하는 전시 연계 프로그램이 열린다. 참가자는 예약제로 모집하며 모든 퍼포먼스는 (재)광주비엔날레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관람할 수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GB커미션 작품 중 호 추 니엔의 '49번째 계'와 5·18 민주화운동과 1900년대 초반 하와이 이주민을 연결한 김성환의 신작 '머리는 머리의 부분'을 만날 수 있다. 전당에서는 또 8개 그룹, 총 14명의 대만과 한국 작가가 참여하는 대만 동시대문화실험장의 파빌리온 프로젝트 '한 쌍의 매아리'도 진행중이다.

그밖에 스위스 쿤스트하우스 파스파르트가 주최하는 또 다른 파빌리온 프로젝트 '얼른 투게더'는 스위스 안무가 안나 안데락은 중심으로 무용수, 건축가, 작곡가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참여한 퍼포먼스와 설치미술, 영상이 어우러진 작품으로 예술의 거리 은암미술관에서 관람객을 만난다. <끝>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미디어 333에 전시된 타렉 아투이의 '엘레멘탈 세트' 중 한 부분.

ACC, '이퀄리브리엄' 전

국립광주박물관, '역사문화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아시아 작가들이 경험한 과거 환경을 매개로 생태계의 현재와 미래를 모색하는 '이퀄리브리엄'이 열리고 있다. 오는 5월 9일까지 복합 3, 4관에서 개최되며 '이퀄리브리엄'은 생태계에서 종의 종류와 수량이 항상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의미한다.

한국의 김준 작가를 비롯해 배정기, 대만의 라일라 친후이판과 케친위안, 베트남의 응우옌 우담 트랑, 인도네시아의 몰라나 등 아시아 작가 11명이 참여했다. 섹션 1은 '개인의 과거 기억 속 환경'에 주목하며 섹션 2와 섹션 3의 작품은 환경과 관련해 축적된 개인의 기억에 초점을 맞췄다. 섹션 4는 환경 자유와 미래 비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의식의 전환을 일깨우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수미)이 지난 3월 8일



몰라나 작 '오션 원더랜드'

공개한 역사문화실은 구석기부터 조선에 이르는 남도의 빛나던 시간을 담고 있는 유물을 한자리에 볼 수 있는 공간이다.

역사문화실 공개는 지난해 12월 아시아도자문화실에 이어 진행된 상설전시실 개편 사업 일환으로, 광주전남 위상을 알 수 있는 유물과 인물 그리

고 자료 위주로 구성했다. 전시실에서는 순천 월평의 구석기 유물, 화순 대곡리 청동기 유물, 고흥 안동고분 투구와 갑옷,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석 등, 분청사기 상감 '경태5년명' 이선재 묘지 등 지역의 뛰어난 문화유산을 볼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정선 작가 미술 인생 35년 '훨훨 날다' 전

30일까지 광주 주안미술관

서양화가 정선 작가의 작품은 화면 전체를 매운 강렬한 오방색이 주인공이다. 슬한 붓질로 색을 덧칠하며 만들어낸 화폭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건 마치 미미한 삶의 흔적처럼 '선' 하나를 그어 극도로 단순화시킨 작디 작은 '새 한마리'다.

다양한 색깔의 화폭 속에서 마치 '숨은 그림 찾기' 하듯 놓여 있는 새는 화면의 상하좌우 어디에 존재하느냐에 따라 다채로운 느낌으로 다가온다.

정선 작가 초대전이 오는 30일까지 광주 주안미술관에서 열린다. 대표작 시리즈인 '훨훨 날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그녀의 미술 인생 35주년을 기념하는 전시이기도 하다.

정 작가에게 작품의 모든 영감과 모티브는 '어머니'다. 하늘에 있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훨훨 날다' 시리즈는 수행하는 마음으로 닥종이를 오방색 물감을 20번 이상 덧칠한 작품이다. 거친 표면은 세월의 흐름을 고스란히 보여주며 한마리 새가 돼 어머니를 만나고 싶은 바람을 담았다. 강렬한 색채와 그 만의 색깔과 깊이감이 더해진 반복 작업은 화폭에 독특한 '결'을 만들어 내며 색다른 느낌을 준다.

화폭 속에 등장하는 '새'는 작가의 또 다른 자아이기도 하다. 작은 새 한마리가 돼 자유롭게 비상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은 새는 훨훨 날아 어머니에게 가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기도 하고, 작가가 꿈꾸는 이상의 세계를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



'봄비'

또 닥종이를 활용한 빨래판 모양의 부조 작품은 '한지를 몇 번이고 자르고 발라서 만들어낸' 흰색 위에 새, 나무, 자연의 이미지를 탁본하듯 입체적으로 표현해 눈길을 끈다. 그밖에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등 다채로운 시리즈를 통해 작품 변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어 흥미롭다.

조선대 미술대 회화과를 졸업한 정 작가는 (사)현대미술애호가, 광주·전남 여성작가회원으로 활동중이며 20여차례 개인전을 열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나주 정촌고분 출토 '모자도' 제작기술 보고서 발간

나주 정촌고분 출토 유물인 모자도(母子刀)의 제작기술을 알 수 있는 보고서(사진)가 발간됐다.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소장 이은석)는 나주 정촌고분 출토유물 모자도(母子刀) 제작기술을 담은 연구와 재현품을 만드는 과정을 수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장식용 칼인 모자도는 큰 칼(大刀)인 모도(母刀)의 칼집에 작은 칼인 자도(子刀)가 붙어 있는 구조다. 자도는 모도 칼집 면에 붙어 있는데, 1개부터 최대 6개까지 부착되며 주로 삼국 시대 고분에서 출토된다. 같은 화려하며 금, 은, 동 등 재료로 만들어 무덤에 묻힌 사람의 신분을 보여준다.

정촌고분 모자도는 금동신발을 신고 있던 40대 여성의 것으로, 발굴 당시 원형을 알기 힘들 정도로 부식상태가 심했다. 2015년부터 총 5년에 걸쳐 엑스(X)선 투과촬영, X선 컴퓨터 단층촬영, X선 형광분석 등 다양한 과학적 방법을 활용했다.

그 결과 고리형태 금피장식은 구리로 만든 후 얇은 금판을 씌워서 제작했다는 사실 등을 밝혀냈



다. 이를 근거로 제작기술을 복원할 수 있는 설계를 만들어 한상봉 국가무형문화재 장도장(제 60호)이 재현했고, 박강용 전북무형문화재 옷칠장(제13호)이 참여해 완성했다.

이번에 책자에는 '한국 출토 모자도의 지역성과 나주지역 모자도(이건용)', '일본열도 출토 모자도의 계보와 의미(김우대)' 등 논고 2편도 수록됐다. 특히 '한국의 모자도 자료집'에서는 5~6세기 고분 출토 모자도 98점에 관한 목록, 유적위치, 출토유구, 출토상황(사진·도면)·유물사진 등도 볼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국립남도국악원 '청소년 국악체험' 참가자 모집

국립남도국악원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2021 청소년 국악체험' 참가자를 모집한다.

국립남도국악원이 해마다 진행해 온 '청소년 국악체험'은 전국의 초·중학교 청소년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 관람과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또 청소년들이 교실에서 책으로 배웠던 국악을 직접 경험하며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

코로나19로 1박2일 체험도 함께 진행됐던 예년

과 달리 올해는 당일 과정의 체험만 진행하며, 체험은 국악공연(기악·무용·민요·사물놀이 등) 관람과 전시악기 열람 등으로 구성됐다.

체험은 전국의 초·중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점심식사와 버스가 무료로 제공된다.

참가신청은 오는 16일까지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문의 061-540-4029.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앞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국제보청기

2015~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수상 혁신상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수상 [혁신상품부문] 수상